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와 미래: 중화주의와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The History and Future of East Asian Community: Beyond Sinicism and Pan-Asianism

이동수 _경희대학교

Lee, Dong-soo _Kyung Hee University

초록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중국중심의 중화주의적 질서 속에 놓여 있었으나, 19세기 서세동점 이후 중화주의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틈을 이용해 서구 근대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앞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화주의는 조공과 책봉을 당연시 했던 유가사상의 뒷받침과 한(漢)나라 이후 중국 제국들의 막강한 세력 위에 위계적인 질서를 세운 것으로서, 실제로는 중국중심의 패권주의와 같았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연대를 주장했던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겉으로는 그럴 듯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중화주의를 대체하는 일본중심의 패권주의에 불과하며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높은 파고에 동아시아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블력화가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중일 삼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패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깊은 자기성찰을 토대로 중국 및 일본과 대등해질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의 제시와 그것을 토대로 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국력의 향상이다.

□ 주제어: 동아시아 공동체, 중화주의, 아시아주의, 패권주의

Abstract

From the ancient times, the sinitic order had prevailed in East Asia. After its collapse in the 19th century, the Japanese Meiji government made a new order in the region with the idea of Pan-Asianism. While sinicism was not based only upon the theory of Confucianism but upon the Chinese imperialistic hegemony established after the Han dynasty, Pan-Asianism was not a theory of solidarity but a strategic rhetoric for the imperialistic invasion upon China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sinicism was simply replaced with Pan-Asianism, and it meant that hegemony had transferred from China to Japan. The result was that there happened a series of wars. Nowadays, a regional bloc in the East Asian area is more needed than before to overcome the high waves of the globalization. However, it should be a community among equals, not a hierarchical order with hegemony. What we Koreans should do is to make a deep self-reflect and to develop both a new discourse and a real state-power.

□ Key Words: East Asian Community, Sinicism, Pan-Asianism, Hegemony

I. 서론

오늘날 동아시아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일본의 선진국 진입과 20세기 후반 한국을 비롯한 4룡의 성장,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놀랄만한 발전과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며 또한 세계경제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 모델의 기저를 이루었던 서구중심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지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는 탈근대사회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19세기 서세동점 시대 이후, 동아시아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1930년대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공산화된 중국과도 대립을 지속하여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세기 초반 한국을 강점한 바 있으며 이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자체는 남북으로 나뉘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은 핵개발을 위협하면서 남한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의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갈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비슷한 문화와 사상을 갖고 있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이 지역은 지식인들이 고대로부터 같은 종류의 저작을 독서하였으며, 각 국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교를 비롯해 불교, 도교, 민간신앙에 있어

서 공통의 정신과 사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교적 사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체제인 중화주의적 질서는 단지 일국의 특징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특징을 이루었다.

원래 중화주의(中華主義)는 주대(周代)로부터 태동하여 한대(漢代)에 이르러 이념적으로는 유교의 수용을 통해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제국의 팽창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 후 중국대륙의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다시 통일을 완수한 왕조들은 중화주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송대(宋代)와 명대(明代)를 거치면서 이 이념은 더욱 굳어졌고 한족화된 이적(夷狄)의 왕조인 청대(清代)에도 중화주의는 여전히 중국 및 동아시아의 중요한 담론이자 현실로 여겨졌다.

중화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문명발생국이었던 중국의 한민족이 자국과 자민족의 문화를 최고의 지위와 절대적 기준에 올려놓는 문명관이며, 스스로를 주변 국가들과 구분하는 국제질서관이었다. 또한 중국의 문화를 보편적인 문명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이며, 한족 중심의 문화를 문명(華)으로 인식하고 주변의 비한족문화를 야만(夷)으로 인식하는 화이사상(華夷思想)을 통해 타민족을 차별화하는 대외관이기도 하였다. 다만 대외관계에 있어서 타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화이관을 받아들이고 중국 중심의 중화를 인정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중화적 질서에 편입시켜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원의 평화(pax sinica)를 이루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중화주의가 점차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서세동점의 침탈 및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일본의 등장과 연관된다. 두 차례에 걸친 아편전쟁을 겪으며 동아시아는 중화주의적 질서에 의해 자체로 유지되던 평화가 깨지고, 서구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이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하여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상대국에 대한 침탈을 단행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서구의 충격을 재

1) 강정인·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2000), 105.

빠르게 수용하여 서구화를 추진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앞설 수 있게 되었다.²⁾ 또한 일본은 이러한 혼란이 자신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대륙으로의 진출 및 동아시아 지배를 위해 서구에 협력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에 따라 서구 열강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위상,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적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시아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이념은 서구열강의 침탈에 동아시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다. 하지만 아시아주의는 먼저 서구화를 시작하고 이에 적응한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일본중심의 패권을 인정한다. 이런 아시아주의에 대해 처음에는 중국이나 조선에서 우호적인 태도도 있었으나 점차 일본침략을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고, 실재에 있어서 일본은 조선병합,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아시아주의의 허구성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전후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의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다시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일본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화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의 패권다툼과 전쟁은 안 된다.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든 남북한의 대결이든 21세기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적 전투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파괴와 국가적 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중국중심의 패권이나 일본중심의 패권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즉 팽창주의를 배제하고 호혜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이 새로이 한중일 3국이 서로 협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부상하는 배경이

2)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으나, 그 중 일본은 중화주의에 깊이 빠지지 않고 무사들의 실제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화로의 변환이 쉽게 가능했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동아시아 전통시대에 통용되던 중국패권 중심의 중화주의와 19세기 이후 이 질서가 무너진 후 진행된 일본패권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아시아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주체적인 역할을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위한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화주의: 중국중심의 패권주의

인류 4대문명 중 하나인 황하문명이 발생한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국가가 발달하였다. 하(夏), 은(殷), 주(周)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국가 체제를 이룬 중국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에는 단지 한 국가만 존재한다는 천하일국(天下一國) 사상에 따라 지역통합을 꾸준히 진행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중하(中夏) 또는 중화(中華)³⁾라고 불렀는데, 이때 중(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의 중심임을 뜻하며, 하(夏)는 전설상 중국 최초의 왕조였던 하 왕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크다는 뜻의 대(大)를 의미하고, 화(華)는 문화가 찬란하다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중화, 중하, 중국 등의 명칭은 대략 “문화가 찬란한 중앙의 큰 나라”라는 뜻으로 이해된다.⁴⁾

중국 고대국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은나라의 경우엔 수많은 기존의 군소(群小) 방(方), 읍(邑), 국(國)의 성읍국가(城邑國家)⁵⁾들을 규합하고 복속시켜 은

3) 중국을 중화(中華)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화는 중국을 문명화된 국가라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夷)에 반대되는 화(華)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설명으로는 중화가 중원과 화산을 포함하는 지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 더 방점을 두기도 한다. 주나라는 처음에 수도를 호경(鎬京, 섬서성 서안 부근)에 두었는데, 이곳이 중앙에 위치한 넓은 평원과 높고 수려한 산인 화산(華山)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중원(中原) 혹은 중화(中華)로 불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화가 지리적 개념 외에 문화적 개념인 화하(華夏)의 뜻을 가짐으로써 중국문명을 지칭한다는 것은 여전히 인정된다.

4)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서울: 신서원, 2002), 121-122.

5) 성읍국가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같은 성격을 지닌 국가를 일컬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따르면 상고 중원 지역에는 성읍국가가 은 초기엔 3,000여개, 주 초기엔 1,800여개가

왕실 중심의 방국연맹체제를 만들었으며, 주나라의 경우엔 주 왕실 일족과 동맹 부족을 지방의 방백(方伯)과 제후(諸侯)에 분봉하여 동맹국가체제를 이루었다.⁶⁾ 먼저 은나라는 방국연맹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 방, 읍, 국들은 각각 정치적으로 강력한 수장이 통치하고 있는 독립적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농경에 기반한 자급자족 형태를 갖추었고, 군사적으로는 자위능력을 갖춘 무장 집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전통의식, 공동혈연의식, 공동운명의식으로 결속된 독립적인 성읍국가였다. 따라서 은왕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성읍국가들을 통어하기 위해, 송신사상에 따라 국가주도의 대규모 제사를 거행하고 우주 천지자연 창조주인 상제(上帝)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지하여 통치해야 했다.⁷⁾

한편 기원전 1121년경 목야(牧野) 전투에서 은 왕조를 멸망시키고 주 왕조를 개국한 무왕은 봉건제를 통치제도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주나라는 은나라 때보다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욱 독립된 제후들을 통어하기 위해 더 강력한 통치이념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은나라에서는 상제의 권위를 빌린 은왕이 통어자로 존재했지만, 주나라에서 주왕은 단순한 통어자가 아닌 우주 천지자연의 창조주인 천(天)의 절대적 권능을 부여받은 천의 아들 즉 천자(天子)로 간주되고 하늘의 천명(天命)을 받은 자로 격상되었다. 그리하여 주대에 천은 단순히 창공이 아니라, 우주 천지자연을 창조한 조물주, 천지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제어하는 규제자, 유덕자에게 천명을 내리고 악인에게 천벌을 내리는 절대자였으며, 동시에 주족(周族)의 조상신이자 최고의 신이었던 것이다.⁸⁾

그런데 주나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명사상에 따라 주왕을 정점으로 하고 화(華)와 이(夷)를 망라하는 천하국가상을 수립하였다.⁹⁾ 『주서(周書)』에 따르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으며, 다만 출토되는 유물로 판단하건대 무수히 많은 숫자인 것은 틀림없다.

6) 이춘식, 위의 책, 224.

7)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20.

8) 이춘식, 위의 책, 31-32.

9) 화와 이, 즉 중화와 이적만이는 대체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었다. 첫째, 혈연으로서 부족이나 민족의 차원. 둘째, 지역으로서 중원지역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변방에 있는지

면, 은나라 때에는 천하란 여러 방, 읍, 국으로 이루어진 사방(四方), 사극(四極)과 같은 개념으로서 은왕이 통치하는 지역을 일컬었다. 반면 주대에 천하라는 개념은 제후국을 포함해서 주 왕조의 정치 및 군사력이 미치는 봉건적 통치영역 뿐만 아니라, 주왕의 통치영역 밖에 존재하는 사예(四裔) 즉 오랑캐인 이적만이(夷狄蠻夷)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요컨대 주대의 천하란 주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화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이적만의 지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치개념으로서, 주왕은 천명에 따라 이 화이의 세계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¹⁰⁾ 그리하여 주왕의 실제적인 정치적·군사적 통치력은 주왕의 영토에 한정되지만, 이념적으로는 하늘 아래 모든 땅과 바다 그리고 화와 이를 망라한 만백성들을 포함한 천하가 주왕의 통치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요컨대 주대에 왕은 우주 천지자연의 창조주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유일무이한 천명의 봉행자로서 통치의 정통성을 견지하고, 또한 하늘의 아들인 천자로 승격되어 통치의 신성함을 갖는 존재로 여겨졌다. 천·천명·천자·천하의 등식으로 구성된 주 왕조의 통치사상이 형성되고, 주왕을 정점으로 화이를 망라하는 천하일국상이 수립된 것이다.¹¹⁾

그러나 현실 정치세계에 있어서는 봉건제에 의존하는 주나라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대격변기를 거친다. 천하일국상에 의해 주왕은 천자로 격상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주왕은 봉건제적인 천하를 통제하고 통어할만한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지는 못했다. 주왕은 중원의 주인이기는 하나 확실한 패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경쟁을 하면서 중국은 분열된 상태로 격변을 겪었던 것이다.

이런 혼란된 상황을 다시 통일한 것은 진(秦)나라의 진시황이었다. 그는 전국 의 6개국을 무력으로 병합하여 천하를 통일하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절대군주체제를 확립하였다. 특히 자신의 호칭으로서 그동안 은, 주 왕조를 비롯해 춘추전국시대 각국의 군주들이 사용해왔던 왕과 천자라는 존호를 폐지하

여부, 셋째, 문물, 제도, 관습, 질서, 규범 등을 포함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 강진식, “중화주의의 원형 재구와 당대 이데올로기 조명,” 『중국학보』 제63권(2011), 429.

10)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39.

11) 이춘식, 위의 책, 41.

고, 황제(皇帝)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여기서 황(黃)은 ‘광휘한’ 혹은 ‘위대한’이란 뜻으로 지상에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며, 제(帝)란 우주 삼라만상을 통괄하는 조물주이며 대자연을 주재하고 있는 최고의 신인 상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황제란 ‘광휘의 상제’ 혹은 ‘위대한 상제’를 뜻하며, 이는 황제를 상제와 동일시한 것으로서 사실상 황제를 지상의 상제로 신격화시킨 것과 같다.¹²⁾ 이제 중국의 왕은 단순히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천과 동일시되는 신적인 존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진나라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서 유일무이하게 천하를 지배할만한 정통성과 당위성을 갖으며, 이런 황제의 통치는 당연지사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 황제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장악하며 모든 관리임명권을 소유하고 전국의 무력을 장악한 유일무이한 무소불위의 전제군주였다. 정치제도는 이런 전제군주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와 지방을 관할하는 군현제도로 구성되었으며, 농업에 기반하는 사회경제체제 속에서 강력한 신상필벌을 시행하는 법치조직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진 제국은 봉건제에 근거한 다수의 독립적 제후국으로 구성된 주 왕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군주 황제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엄격한 법치로 통치되는 전제군주국가였던 것이다.

이런 전제군주제는 일종의 경찰국가라고 볼 수 있다.¹³⁾ 다만 근대의 경찰국가와 차이가 있다면, 근대의 전제국가는 기존의 다원화된 사회를 획일화된 사회로 강제적으로 개조한 반면, 진나라는 사회가 다원화되기도 전에 벌써 강력한 무력과 법치를 통해 사회를 전제적으로 통제하였던 것이다. 이런 통제에 관료제와 군현제가 일조함으로써, 사회는 더욱 더 국가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절대군주체제는 일반백성뿐만 아니라 지배층 내부에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진시황은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통해 일체의 비판을 억제하고 유가 지식인들을 탄압하여 지식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¹⁴⁾ 결국 지나친

12) 이춘식, 위의 책, 90-91.

13) 레이 황, 홍광훈·홍순도 역, 『중국, 그 거대한 행보』(서울: 경당, 2002), 81.

14) 레이 황, 홍광훈·홍순도 역, 위의 책, 85-88.

전제체제인 진나라가 망하고 한(漢)나라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격적인 중국적 중화질서가 실제적으로 성립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은 한 때 한초전(漢楚戰)에서 열세에 있었는데, 유가 지식인들이 건의한 천명사상을 통해 민심을 얻고 결국 승리하였다. 이 후 고조는 유학자인 육고(陸賈), 유경(劉敬), 숙손통(叔孫通) 등의 의견을 따라 한나라를 명실상부한 중화주의적 질서관에 따라 확립해 나갔다.

이때 구축된 중화주의적 질서는 과거 주나라 때 성립되었던 지방분권적 봉건제가 아니라, 기왕의 진나라가 수립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전제군주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진나라와 달리 패도정치 뿐만 아니라 도덕정치를 모두 사용하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중앙집권제를 혼용하고, 국제질서에 있어서는 무력으로 정복을 하지만 주변국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어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진화한 것이다.

중화주의적 질서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의 화가 주변의 이를 다스리면서 천하를 일통하여 안정적인 일국체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가 건국되었을 당시 내부적으로는 군현제를 실시하여 안정을 기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경쟁국가와 다양한 형태로 대처하여 안정을 꾀하였다. 한나라 초기엔 북쪽에 흉노(匈奴), 남쪽에 남월(南越), 그리고 동북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 등의 경쟁 상대가 있었으며, 한나라는 이들을 주변의 이(夷)로 칭하였다. 하지만 이 국가들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과의 관계정립이 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먼저 흉노의 경우를 살펴보자. 흉노는 몽골초원을 중심으로 광활한 북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유목국가로서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한 남쪽의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한나라는 수차례에 걸쳐 흉노와 전쟁을 하였는데, 초기에 한 고조는 평성에서 대패한 적도 있으며 화친을 맺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이 화친의 내용은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는데, 한나라는 흉노에 매년 정기적으로 쌀, 술, 비단 등을 봉헌하고 황실여자를 흉노의 황후로 출가시켰으며 그 대가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흉노에 입공(入貢)한 것

으로서 이 관계는 한 고조 9년(기원전 198)부터 무제 원년(기원전 134)까지 약 64년간 지속되었다.¹⁵⁾

반면 남월국은 조타가 진나라 멸망 후 계림, 상군 지역을 병합하고 광동성, 광서성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하였는데, 그 세가 베트남 북부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평성에서 흉노에 대패한 한 고조는 남월국을 원정하여 정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남월국 수립을 인정하고 조타를 남월국왕으로 책봉하면서 회유하였다. 이에 조타는 한 제국 천자로부터 외신 제후왕으로 책봉된 후 자신을 번신(藩臣)으로 자칭하였으며, 그 후 남월국의 승계싸움에서 한나라 천자는 번신들의 싸움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남월국은 한나라의 번국(藩國)이었던 것이다. 또한 동북의 위만조선은 한나라 천자의 외신으로 책봉되면서 한나라 동북변경 지역의 오랑캐들을 관리하고, 변경을 안정시키며, 만이군장(蠻夷君長)들의 한나라 천자에 대한 입현(入見)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위만조선 군주도 동북 지역에서 한나라의 변병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을 사분하고 있던 북쪽의 흉노, 중앙의 한나라, 남쪽의 남월국, 그리고 동북의 위만조선 간의 상호관계는 흉노-한나라 간의 차등적 입공관계, 한나라-남월국 간의 봉건적 책봉입공관계, 그리고 한나라-위만조선 간의 봉건적 책봉입공관계를 매개로 차등적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4개국 간의 총체적인 국력의 강약과 자국의 국익추구에 의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익변동과 국제역학 관계의 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¹⁶⁾

한나라는 초기엔 주변국의 입공 허용, 사신 왕래, 물자교역, 군사, 경제적 원조 제공, 영토 양보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사방의 변경 안정을 도모하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안으로는 무위정책(無爲政策)을 경제부흥과 사회안정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여 국력회복에 진력했다. 이렇게 한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나라의 중화주의는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하였다.

15)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206.

16) 이춘식, 위의 책, 215.

한 무제 때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10여년간 흉노와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전투에 진 무제는 ‘운대(輪臺)의 조서’¹⁷⁾를 발표하고 흉노와의 무력충돌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흉노도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후 다섯 선우가 각기 자립하여 서로 공격하면서 내분에 휩쓸렸다. 이 중 권력 쟁탈전에서 실패한 일축왕(日逐王) 비(比)가 남흉노로 독립하여 흉노제국은 남북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남흉노는 한나라의 신하로 칭신하고 내조하여 한의 객신(客臣)이 되었으며, 한의 여러 제후왕들 중 상위에 책봉되었고, 따라서 흉노제국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본격적으로 한나라의 패권이 강화되는 한 제국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¹⁸⁾

한편 남월국은 한 무제 때 내부 반란문제가 발생하였고, 남월국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한제국의 내번화(內藩化)를 반대하는 세력이 득세하자, 무제 5년(기원전 112) 병력을 동원하여 남월국을 공격하였다. 이에 남월국은 5대 93년 만에 멸망하고 이 영토에는 9군이 설치되어 한제국 천자의 직속영토로 편입되었다.¹⁹⁾ 한편 위만조선은 세력이 강성해진 우거왕 때 이르자 한제국에 대해 외신 제후왕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입조를 이행하지 않고, 한제국 천자를 입현하려는 진번 등의 주변 군소 부족국가 사신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방해하였다.²⁰⁾ 또한 외신 제후왕이었던 우거왕은 무제의 조서 수령을 거부하고 요동에 침입하기도 함으로써 한제국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였다. 이에 한 무제는 위만조선이 흉노와 연대하여 반기를 들까 두려워하고, 위만조선의 행위가 외신 제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남월국 병합의 여세를 몰아 위만조선을 무력으로 멸망시키고 여기에 4군을 설치하였다.

즉 한나라는 무제 때 이르러 북쪽으로는 남흉노를 포섭하여 제후로 삼았고, 남쪽의 남월국을 정벌하여 직할영토로 편입하였으며, 동쪽의 위만조선을 정벌해 한사군을 설치하여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서쪽 지역은 하서(河西) 4군을

17) 전쟁에서 흉노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백성의 생활과 국력을 약화시킨 후 무제가 다시는 변방으로 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조서.

18)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225-228.

19) 이춘식, 위의 책, 237-238.

20) 『사기(史記)』권 115 「조선열전(朝鮮列傳)」, 2987.

설치하였고, 대원국(大宛國)을 정벌한 다음, 서역도호부를 세움으로써 서쪽지역도 외번화(外蕃化)시켜 궁극적으로 중화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는 세력이 약했던 고조 때에는 주변국과 화친을 맺어 교류하면서 안정을 도모하였고, 국력이 강해진 무제 때 이르러 자신의 외번 혹은 내번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지역을 안정시킴으로써 국제질서를 재편하였다. 이것은 한제국을 정점으로 내번화와 외번화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맺는 화이관계에 입각한 중화적 국제질서를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흉노와 같은 강대국은 경쟁 상대였으며, 남월국이나 위만조선과 같이 번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엔 즉각 정벌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주변국들이 한제국 천자의 외신 책봉을 수용하고 봉건적 입공 또는 조공관계를 수립하면 정치적 자율성은 보장하고 교역을 통하여 한 제국의 방대한 경제력과 선진문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국가안보도 보장해주었는데, 이를 중화주의라는 이념으로 통제하였던 것이다.²¹⁾

이러한 중국의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체제, 즉 중원의 패권자가 화이적 세계관 속에서 그 주변을 내번화와 외번화를 통하여 흡수하고 천하를 일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한나라 이후 계속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및 질서관이 되었다. 다만 중원의 어느 누가 확실한 패권을 유지하지 못했던 경우에 중국대륙은 서로 분열하기도 하였고 (5호16국 시대, 5대10국 시대), 혹은 강력한 외부 주변국이 중원을 장악하여 또 다른 질서(금나라, 원나라)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금 예전과 같은 질서관 속에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등 통일제국이 이어졌다. 만주족인 청나라도 중원을 장악한 후 한족화되면서 계속 중화주의를 이어갔으며, 아편전쟁 후 서구의 침탈로 퇴색할 때까지 중화주의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중화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번국인 조선과 같이 유학자인 사대부가 지배층이 되어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국력이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서세동점(西勢東占)이 시작된 19세기 이전인 16세

21)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279.

기부터 사실상 이를 유지할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명의14대 황제인 만력제(萬曆帝, 재위 1573-1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제는 국가운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권력유지에만 전념한 반면, 국가운영은 그 동안 발달해온 전문 관료들이 전담하면서 기득권층화 되고, 점차 제국으로서의 면모는 잃어가기 시작했다. 경제는 쇠약했으며 재정은 문란하였고, 국가의 재원도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었다.²²⁾

외부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왜구의 발호가 발목을 잡았다. 왜구 때문에 해안을 비우는 공도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왜구의 밀무역을 막기 위해 쇄국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요컨대 명나라는 한나라 때와 같은 비약적인 제국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농민반란이 빈번하였고 결국 그 동안 이적만이에 해당되었던 만주족에게 중원을 내주고 말았다.

만주족이 지배층인 청나라는 명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빠르게 한족화되었다. 그리고 황제권을 다시 강화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시금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해 갔다. 하지만 서구와 대결한 19세기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중화주의적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도 태평천국의 난으로 국가체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860-70년대 서양을 모방하자는 양무운동과 자강운동을 통해 다시 국운의 회복을 기했지만, 1894년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에서조차 일본에게 패함으로써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중국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 물리적인 피해와 함께 특히 심리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 즉 화이질서의 중심대국인 청이 이 질서의 말단 소국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으로써, 화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망국의 위기의식까지 팽배하게 되었다. 중화주의적 질서보다는 근대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근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느끼게 된 것이다.²³⁾

22) 레이 황, 홍광훈·홍순도 역, 『중국, 그 거대한 행보』, 345.

23) 다만 중화주의적 전통을 있다는 의미에서 1911년 신해혁명 후 쑨원(孫文, 1886-1925)은 국호를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칭하였다.

Ⅲ. 아시아주의: 일본중심의 패권주의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중심의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의 경계에 놓여있던 국가이다.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책봉체제와 조공체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운영되었고, 중국인의 세계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리적 이유 때문에 해양국가인 일본은 다른 주변국들과는 다르게 중국 통치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속국(屬國)이나 번국(藩國)은 아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의 주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백제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게 되었으며 유교사상을 비롯해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맺기보다는 조공을 비롯한 통상적인 관계에 입각한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신을 또 하나의 천하(天下)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서세동점 시대가 도래하자 1871년 일본은 중국과 새로운 만국공법 패러다임에 의거한 청일수호조규(淸日守護條規)를 체결하였다. 이는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와는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일본과 중국이 관계를 맺는 이정표를 세웠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국가발전 과정부터 살펴보자. 고대 일본열도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지역국가들이 서로 대립하고 항쟁하는 동란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야마토(大和, 현재의 나라현)를 중심으로 한 호족세력이 우세하여 다른 지역의 지배자인 왕과는 달리 대왕(大王)이라 부르게 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7세기에 이르러 쇼오토쿠(聖德) 태자(574-622)는 호족들의 세력화를 막고 ‘헌법 17조’²⁴⁾를 제정하여 화합의 정신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다.²⁵⁾ 그 후 텐무(天武) 대왕(재위 673-686)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덴노(天皇)라 칭하고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덴노는 단순히 왕이 아닌 아라히

24) 604년 수이코(推古) 덴노 때, 쇼오토쿠 태자가 덴노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 모든 사람들을 신하로 종속시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5) 다카시로 고이치,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서울: 살림, 2006), 13.

토가미(現人神) 즉 살아있는 신을 의미하며, 이로써 덴노는 신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 통치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세력이 여전히 컸던 일본에서 덴노란 상징적 지위에 불과하며 황제로서의 실권은 매우 약했다. 따라서 중국과 달리 덴노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전제적 황제체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덴노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고 그것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고정시킴으로써 만세일계(萬世一界)의 황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덴노는 입헌 군주의 성격을 띠었으며, 셋쇼(攝政, 미성년의 덴노를 보좌하여 섭정을 실행), 간파쿠(關白, 성인인 덴노를 보좌하여 정치를 담당), 쇼군(將軍, 덴노에게 위임 받아 실제 권력을 행사) 등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가 되었다.²⁶⁾ 이는 중국 황제가 중앙집권을 이루고 권력을 독점한 형식과는 전혀 다른 정치구조였던 것이다.

12세기 말부터는 쇼군들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막부체제가 형성되었다.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1185-1333)와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1336-1573) 시대를 거쳐 전국시대(1467-1573)의 혼란을 겪었으며, 1603년 관동 지역의 다이묘(大名)인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 1542-1616)가 다른 서군의 다이묘들을 격파하고 도쿠가와 막부체제를 만들어 내치에 힘썼다. 이를 통해 일본은 권위를 가진 덴노의 조정과 실제 권력을 가진 막부의 이중 지배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리고 중앙의 쇼군은 강력한 영주권을 갖고, 지역 번(藩)의 다이묘들은 그 지역의 토지와 인민을 통치하는 막번(幕藩)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체제는 2세기 반 동안 지속되었으나, 1853년 미국 페리함대가 출현하고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봉건적인 막부체제를 청산하고 서구적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남지방의 유력한 번들인 서남웅번(西南雄藩)이 중심이 되어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의 번들을 현(縣)으로 바꾸어 중앙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요컨대 막부체제를 해체하고 덴노를 전면으로 부상시켜 근대적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패러

26) 다카시로 고이치, 위의 책, 30.

다임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했다. 첫째, 근대세계는 국가들 간의 서열에 따르는 중화주의적 천하관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서구의 만국공법에 따라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들이 자유로이 조약을 맺는 국제관계이다. 둘째, 당시 국제관계는 서구열강들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제 전체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지방 번들이 폐지된 것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을 무마하고 일본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대륙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임진왜란도 그 중 하나였으며, 다만 중화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력이 약한 일본은 아직 진출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도쿠가와막부는 지역 번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정치적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막부 직할령인 나가사키(長崎)에서만 해외무역을 허용하고 대체적으로는 쇄국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아편전쟁을 통해 더 이상 중국이 패권국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앞서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메이지 유신의 진행 과정에서 권력투쟁에 밀려난 사람들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었다.²⁷⁾ 메이지 초기 때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 정벌을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 정한론에 반대한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는 아시아가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연대하여 구미열강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는 현실주의적 정치가의 관점에서 청나라와의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동아시아 정벌과 연대의 이중주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²⁸⁾

27) 정한론은 이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1년 『삼국통감(三國通鑑)』에서 조선, 유구(琉球, 오키나와), 오랑캐에 대한 침략을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중국, 조선, 일본 사이에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 1850-1922)는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초고 1885, 출판 1893)을 통해 이런 동일성을 근거로 아시아의 연대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동국(大東國)이라는 이름 아래 합방을 하고, 나아가 중국은 이 대동국과 합종한 후, 장래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과 함께 황인종의 나라로 구성된 대(大)아시아 연방을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하였다.²⁹⁾

당시 일본은 겉으로는 정한론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내고 아시아 연대론에 주목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동경에서는 1880년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을 띠고 있는 흥아회(興亞會)가 창립되어 아시아 연대론에 앞장섰다. 이 모임의 전신은 1877년 소네 토시토라(曾根俊虎, 1847-1910) 등이 아시아의 흥기진작을 위해 설립한 진아사(振亞社)였다. 이것이 흥아회로 발전하였으며, 이 모임에는 일본의 정부관리나 군인 등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 청국 공사인 허루장(何如璋)과 참찬관 황준시엔(黃遵憲) 등도 입회하고 있었다. 심지어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절 김홍집 일행도 참석하는 등 아시아 각국 간의 연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였다.³⁰⁾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아시아관은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동양을 미개하여 멀리해야 할 나쁜 친구로 여겨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는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한 해외팽창론을 주장하였다. 1885년 『시사신보(時事新報)』에 게재된 사설 「탈아론(脫亞論)」에서, 그는 일본이 아시아의 악우(惡友)인 중국 및 조선과는 결별하고 서구열강과 동일한 보조를 맞출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서구열강과 부딪쳐 패퇴하지 않고 국가로서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길로 나아갈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아의 현실적 목표는 청나라를 물리치는 것이었다.³¹⁾

28) 김동기·양일모, “아시아주의의 경험과 동아시아 연대의 모색,”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2007), 69-70.

29) 김동기·양일모, 위의 책, 70.

30) 김봉진, “세계화에의 편승과 저항: 메이지 일본사상사에서의 아시아연대론,” 『미국학』 제28집(2005), 146.

이러한 해외팽창론과는 다른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도 있기는 하였다. 예컨대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2)은 1882년 『자유신문(自由新聞)』에 실린 「논외교(論外交)」라는 논설에서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책과 전쟁론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이 서구문명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지만, 서구 문명의 가치 내지 기준으로 다른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문명 및 문화의 공존과 공생, 그리고 여러 민족의 동등성과 각기 민족문화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전쟁을 반대하며 비무장을 나타내는 평화주의를 지지하였다.³²⁾ 하지만 그도 1884년 일본의 중국진출 인재양성을 위해 상하이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양학관 설립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³⁾

결국 현실은 아시아 연대를 표방한 침략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근대화 및 부국강병을 추구했으며, 또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제국주의를 목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메이지 정부 초기부터 일관된 외교적 목표이기도 하였다. 즉 당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일본이 생존하고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일본이 아시아대륙에 영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중국은 해외팽창과 통합의 대상이 되었다.

그 제일보는 현재 오키나와현인 유구왕국을 병합하는 것이었다. 원래 오키나와 지역에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화주의적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무장한 채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유구왕국이 존재했다. 유구는 중화질서 속에서 청에 조공을 할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조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1871년 유구사람들이 대만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유구를 중, 일 양국에 대한 양속상태를 해소하고 일본에 전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유구국을 폐지하고 유구번을 설치하였으며 유구왕을 유구번의 왕으로 삼았다.³⁴⁾ 그 후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 강화를

31) 김현철, “근대 일본의 아시아관과 청일전쟁,”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권(2004), 99.

32) 김현철, 위의 글, 105.

33) 김봉진, “세계화예의 편승과 저항: 메이지 일본사상사에서 아시아연대론,” 152.

34) 또한 청나라는 이 사건을 일으킨 대만이 중국의 정령과 교화가 미치지 않는 화외(華外)의

위해 지역의 번을 현으로 직할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외중에 유구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오키나와현으로 최종 귀속시켰다.³⁵⁾

그 다음 일본의 행보는 조선을 병합하는 것이었다. 유구병합 이후 조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던 일본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자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청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일본이 조선에 집착한 이유는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으며,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해, 쓰시마 해협, 황해를 포함해 조선과 그 주변지역이 일본에 적대적인 제3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제3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에게 조선의 독립을 주장해왔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력을 증가시켜 결국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³⁶⁾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제국을 건설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해 배타적이면서도 침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중화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유구왕국 병합을 기점으로 대만에 출병하고 조선에 진출하면서 거대한 전환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모색했던 것이다.³⁷⁾ 그리고 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진출을 아시아 연대 혹은 아시아주의란 말로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은 이제 아시아 연대를 넘어 “아시아는 하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는 1903년 영어로 발표한 팸플릿 『동양의 이상』에서 미술사적 관점에 입각해 아시아가 하나됨을 확인한 뒤 이에 근거해 동양의 우위를 주장하며 서양의 식민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산업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다. 아시아적 영성의 부활이라는 이상에

지역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일본군이 대만에 출병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아도 중국은 이 시점에 이르러 점차 중화주의적 질서를 포기하는 듯 해 보인다.

35)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서울: 논형, 2008), 225-228.

36) 김현철, “근대 일본의 아시아관과 청일전쟁,” 101.

37)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245.

기초를 두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를 의탁할 진정한 저장고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특화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다.³⁸⁾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세계대전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더욱 대담해진다. 오데라 겐이치(小寺謙吉, 1877-1949)는 아시아주의를 넘어 ‘대아시아주의’까지 표방하였다. 1917년 그는 대백인 종족투쟁을 위해 동문동종, 동사상, 동문학, 정치, 제도 문학의 역사적 유사성, 무종교, 생활행사의 유사성 등을 들어 중일제휴의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이때 조선은 이미 일본에 병합되었으므로 대아시아주의의 주된 목표는 일본과 중국의 연대였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는 황색인종에 대한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황화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상보적 역할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상보적 관계 속에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일본의 선각자적 위치가 요구되었다.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신문명을 섭취하고 빨리 진보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명적 지도의 자격에 있어서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한편 1930년대 들어서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자키 호즈미(尾崎秀實, 1901-1944)는 아시아주의라는 이념에 중국과의 실제적 협력이라는 실재를 고려한 ‘동아협동체론’을 주장하였다. 또 미키 기요시(三木清, 1897-1945)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주의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는 중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통일을 실현하고 이로써 세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의 전통이 개별 민족을 초월한 ‘게마인샤프트적인 문화’ 곧 ‘동양적 휴머니즘’이며, 이 전통에서 봉건성을 제거하면 새로운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역시 이 과정은 일본이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계속하여 아시

38)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20세기 한중일의 인식,”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서울: 창비, 2010), 17.

39) 김동기·양일모, “아시아주의의 경험과 동아시아 연대의 모색,” 74.

40)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20세기 한중일의 인식,” 18-19.

아시아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런데 이 아시아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인의 동질성을 근거로 하여 연대 내지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아시아 연대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서구문명을 먼저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추구한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시아주의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이론적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한편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즉 유구와 대만, 그리고 조선을 병합하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현실정치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했다. 요컨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한편으로 아시아인의 동질성을 근거로 연대를 주장하지만, 본심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위한 일종의 수사(rhetoric)로 작용했던 것이다.

아시아주의에 내포된 이러한 이중성은 오늘날 일본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교수는 아시아주의가 역설과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시아주의는 사실상 ‘확장된 일본 내셔널리즘’이라고 규정한다.⁴¹⁾ 그는 내셔널리즘에는 원래 방어적 자기보존적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공세적 자기확장적 측면이 있는데,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바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주의는 일본판 중화주의로도 생각될 수 있다. 중화주의가 문명이 발달한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조공과 책봉체제로 묶어 중국 패권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아시아주의는 후진국이었던 일본이 서구와의 조우 이후 근대화에 앞서면서 조선과 중국을 다시 일본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묶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은 중화주의가 역사가 깊고 그 세월만큼 유가사상의 작업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었으며, 단순히 세력이 아니라 문명화에 기초한 질서체계임을 강조하는 반면, 아시아주의는 중화주의의 쇠퇴기에 일본이 서구라는 외부변수를 활용하여 아시아적 동일성을 토대로 일본중심의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아시아주의에는 중화주의만큼의 이론적 깊이는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화주의가 조선과 같은 나라의 지식인이나 지배층에게 잘 먹혔던 데 비해, 아시아주의

41) 야마무로 신이치,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아시아 학자,” 『대동문화연구』 제50권(2005), 66.

가 중국이나 조선의 지도자층에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아시아주의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세 동점의 시기에 중화주의를 대체하여 동아시아인들에게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중요한 세계관이었음은 틀림없다는 점이다.

IV. 결론

우리는 현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각 국가들은 19세기말 만국공법 체제 하에서 상호 수호조약을 맺고 세계질서를 이루었듯이, 오늘날에는 FTA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EU나 NAFTA처럼 지역블록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 및 교역을 확대하고 인접 국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통해 이런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한일합방과 중일전쟁에서 비롯된 일본에 대한 증오, 그리고 오늘날 중국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에 대한 의심은 한중일의 진정성있는 협력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은 시대적 요청이다. 거대한 세계화의 파고와 선진국인 서구에서조차 지역블럭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에 더욱 가깝다.

그런데 새로이 요구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 본 예전의 중화주의나 아시아주의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중국문명의 우위와 패권을 인정하고 다른 인접국들은 이에 복종하는 위계적 질서였으며,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침략과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중화주의나 아시아주의는 중국 혹은 일본과 같이 어느 한 국가의 패권을 전제하고 복종과 안정을 추구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중화주의는 전통세계에서 중국의 문명적 우위와 세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발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 아시아주의는 그보다 더욱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협력과 안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본 패권추구에 따른 전쟁과 갈등만 초래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패권을 전제로 하는 담론이 아니라 한중일 삼국에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각국이 참여할 만큼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여기서 명확히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원칙은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해야만 실제적인 미래의 협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패권에 치우치게 되며, 그것은 곧 공동번영의 추구가 아니라 편차에 따른 주종관계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데 삼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려면, 각국의 세력이나 학문이해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통시대에 중화주의가 지배했던 것은 중국의 세력이 타 국가를 압도하고 중국문명과 학문의 이해수준이 타 국가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은 중국문명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힘썼으며, 중국의 세력권 내에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19세기말에 일본의 패권적 아시아주의가 지배담론이 되었던 것은 중국과 조선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중화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패권이나 일본의 패권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되돌아보고 성찰해보아야 한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세력이 약함을 깊이 인식한 나머지 중화주의 담론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화(小中華)라 칭하며 그 정도의 자부심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현실을 외면했을 수 있다. 또 19세기 말 더 이상 중국의 패권에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또 다른 중화주의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세력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유교를 그 근본으로 삼음으로써 이념적인 중화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적 차원에서의 중화주의적 질서를 너무나 당연시하였다. 이는 조선이 소중화로서의 국가 위상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 자신이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담론을 모색하거나 세력을 넓히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이는 16세기 이후 서구와의 접촉 속에서도 개방적이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세기 말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시작하고 아시아주의를 내세워 조선에 접근할 때, 이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이 속에 숨어 있는 현실정치의 패권적 위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망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당시 우리에게 아시아주의란 중화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상징이었지만, 일본은 애초에 그 믿음에 부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먼저 조선시대 사림(士林)들의 중화주의적 사고관과 이에 따른 현실정치의 측면을 살펴보자.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조선은 초기 개국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명으로부터의 책봉과 조공을 통한 사대(事大)를 받아들이고 중화주의적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태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사고는 종종 이후 변하게 된다. 반정(反正) 이후 중종(재위 1506-1544)은 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나라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사림들도 유학적 이념을 완전히 내면화시킴으로써, 이제 명과 조선의 관계는 이적관계(夷狄關係)가 아니라 내복관계(內腹關係)로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즉 조선은 이적으로서 중화주의의 변방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명나라 내부에 존재하는 신하국의 위상을 갖고 중화주의 안에 편입되었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사고가 소중화의 시작이 되었다.

물론 고려 때도 중화주의는 있었다. 그러나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어느 국가든지 중화국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도덕적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예컨대 고려 말 이승휴(李承休)나 이색(李穡)은 몽골인의 원(元)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종 때 이르게 되면 한족인 명은 단순히 조선과 군신관계(君臣關係)가 아니라 부자관계(父子關係)로까지 인식되었고, 그 뒤를 이은 청에 대해서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을 보였다. 즉 조선의 명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인 군신관계가 아니라 이념화되고 내면화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태생적인 부자관계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42) 계승범, 『중종의 시대: 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 (서울: 역사비평사, 2014), 137.

넘화된 중화주의적 의식은 서구와의 조우에 있어서도 아편전쟁으로 이미 무너진 중국에 여전히 의존하면서 서구를 배척하는 우를 범하게 하였다. 또한 명이 쇠국정책을 펼 것과 같이 소중화인 조선도 쇠국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반면 성리학적 고루함에 숨이 막힌 개화파들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항과 개화를 통해 문명국으로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화파들이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과 친교하면서 청나라를 견제한 것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서구 근대성이 갖는 제국주의적 요소와 일본의 침략야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개화파들은 서구사상의 좋은 측면인 자유나 평등, 문명 등에만 주목했을 뿐이며, 그 안에 내포된 갈등과 폭력, 마키아벨리적 요소 등은 간과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태도는 일본의 접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똑 같은 우를 범하게 하였다. 일본이 전략적 수사로 제시한 아시아주의를 선의로 해석하여 그것의 실행만을 강조했을 뿐, 아시아주의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컨대 안중근(1879-1910)만 하더라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이유가 그가 아시아주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10년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에서 동양이 연대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이를 배신한 일본을 질책하였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자기성찰만으로 동아시아 각국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등한 위상이 될 만큼의 세력 혹은 국력을 형성했느냐 하는 것이다. 즉 부국강병(富國強兵)이 전제 요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조선은 가장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부국강병책을 급속도로 진척시켰으며, 중국도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 부국강병책을 계속 모색하였다. 반면 조선에서는 예의를 중시하는 유학의 이념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 부국강병이 최종적인 국정 목표가 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념은 그 자체 이중적인 차원을 갖는다. 한 사회에서 어떤 이념이 주도적인 담론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채택되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이념이 갖고

43) 안중근, 『동양평화론』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서울: 창비, 2010), 197.

있는 이론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추진력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중화주의도 그렇고 아시아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중화주의는 문명의 지배라는 이론적 정합성과 당시 중국의 힘이 있었기에 통용될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주의는 당시 아시아 연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담론주체인 일본의 힘이 뒷받침되었기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하다. 중화주의이든, 아시아주의이든, 아니면 요즘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든 이것을 정말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이론적인 정합성에만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은 현실세계에서는 항상 합리적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력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국력이 중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면 진정한 한중일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느 패권국가의 주도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두 요소이기도 하다. 국가는 자신을 보존하고 방어할만한 힘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힘에만 의존해서는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소홀히 하여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이념을 명료히 하고 이와 더불어 부국강병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 Submitted : 2016. May. 31
- ▶ Reviewed : 2016. June. 22
- ▶ Accepted : 2016. June. 26

References

『史記』(*Sagi*) 『周書』(*Juseo*) 『春秋左傳』(*Chunchujwajeon*)

- An Junggeun. 2010. “dongyangpyeonghwalon,” Choe Wonsik · Baek Yeongseo Pyeon, *Dongasiainui dongyanginsig*. Seoul: Changbi.
- Baek Yeongseo. 2010. “Jinjeonghan dongasiaui geocheo: 20segi hanjungilui insig,” Choe Wonsik · Baek Yeongseo Pyeon, *Dongasiainui dongyanginsig*. Seoul: Changbi.
- Choon S. Lee. 2002. *Junghwasasangui ihae*. Seoul: Sinseowon.
- _____. 2014. *Junggugpaegwonui ppuliwa inyeom*. Seoul: Golyeodachaggyo chulpanbu.
- Gang Jeongin, An Oesun. 2000. “Seogujungsimjuuiwa junghwajuuiui bigyo yeongu,” *Gugjeongchinonchong* je40jib 3ho.
- Gang Jinseok. 2011. “Junghwajuuiui wonhyeong jaeguwa dangdae ideollogi jomyeong,” *Junggughagbo* je63gwon.
- Gang Sanggyu. 2008. *19segi dongasiaui paeleodaim byeonhwangwa hanbando*. Seoul: Nonhyeong.
- Gim Bongjin. 2005. “Segyewauui pyeonseunggwa jeohang: Meiji ilbonsasangsaeoui asiayeondaclon,” *Migughag* je18jib.
- Gim Donggi, Yang Ilmo. 2007. “Asajuuiui gyeongheomgwa dongasia yeondaclui mosaeg,” *Sidaewa cheolhag* je18gwon 3ho.
- Gim Hyeoncheol. 2004. “Geundae ilbonui asiagwangwa cheongiljeonjaeng,” *Hanilgunsamunhwayeongu* je2gwon.
- Gye Seungbeom. 2014. *Jungjongui sidae: Joseonui yugyohuwau salimundong*. Seoul: Yeoksabipyongsa.
- Jo Seonghwan, Gim Yongjik. 2001. “Munmyeonggwa yeondaclouseoui dongasia: Geundae jungguggwa hangug jisiginui dongasia insig,” *Daehanjeongchihaghoebo*. je9jib 2ho.
- Okakura Tenshin. 2010. “Dongyangui isang,” Choe Wonsik · Baek Yeongseo Pyeon, *Dongasiainui dongyanginsig*. Seoul: Changbi.
- Rei Hwang, Hong Gwanghun · Hong Sundo yeog. 2002. *Junggug, geu geodaehan*

haengbo. Seoul: Gyeongdang.

Takashiro Koichi. 2006. *Ilbonui ijunggwonlyeog, syogungwa cheonhwang*. Seoul: Sallim.

Yamamuro Shinichi. 2005. "Ilbonui asajuuiwa asia hagji," *Daedongmunhwayeongu*.
je50gwon.